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8호 [루게 제 25046호] 주제 104 (2015)년 9월 25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창광상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미래과학자거리에 새로 일떠선 창광상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최룡해동지, 김양건동지, 리일환동지, 조용원동지, 홍영철동지,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창광상점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인 창광상점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완공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서는 미래과학자거리에 몸소 창광상점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형성안도 지도 해주시였으며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과감히 주시였을뿐만아니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연건축면적이 7,200여㎡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있는 창광상점은 경질유리그릇, 수직그릇, 어린이용품, 농그릇, 전기용품, 문화용품, 운동용품을 비롯한 갖가지 상품들이 가득 채워진 20여개의 매장들과 회의실, 과학기술보급실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상품보관과 판매, 구매자들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는 봉사시설들이 그 촘촘히 갖추어져있는 창광상점이 일떠섬으로써 인민들이 자기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갖가지 상품들을 구매할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83년 11월에 창립된 창광상점은 지난 수십년간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여왔다고 하시면서 상점이 미래과학자거리와 함께 새롭게 건설됨으로써 우리의 군수공업부문로 동계급들이 생산한 갖가지 생활필수품들을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상업봉사기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더욱 원만히



모든 경영활동을 정보화, 컴퓨터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상업봉사자들의 인민들에 대한 봉사성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파시하는 문제와 직결되어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봉사자들은 인민의 충부이라는 자각을 안고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새로 일떠선 창광상점이 정말 멋있다고 하면서 언제든지 문을 여는가고 끊임없이 늘어난다는데 미흡한 점이 하나도 없게 운영준비를 더 잘하여 10월 10일을 계기로 개점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창광상점이 개점을 하게 되면 많은 인민들이 찾아올것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자주 내려와 당의 인민적시책이 어떻게 집행되고있는가를 알아보고 상업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 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창광상점의 봉사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심장마다에 새겨 안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창광상점의 전체 봉사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 없는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어둠이 깊은 저녁에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오시어 인민을 위한 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파업을 빛나게 수행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시정지도보단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창광상점이 본래보다 2배나 더 크면서도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철저히 구현된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지로 꾸러짐으로써 상점에 어려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더 잘 받아들일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창광상점의 여러층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으면서도 상업봉사기지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춘 창광상점을 훌륭히 건설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창광상점의 매장들마다에 우리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이 만든 가지수가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들이 팍 차

있다고, 상품진열도 잘했다고 하시면서 상점이 환하다고,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뜻내 기뻐하시였다.

상점에 현대적인 수직승강기와 계단 승강기를 설치해놓았으며 아동놀이터, 청량음료점 등도 손색없이 꾸려놓았다고, 실내온도보장을 위해 지열에 의한 냉난방제도를 잘 구축해놓았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창광상점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창광상점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떨구지 않고 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과 상점의 일군들은 인민들이 어떤 상품들을 좋아하고 어떤 제품들이 수요가 높은가를 제때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수공업부문의 잠재력이 대단하고 최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하고있는것

만큼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군수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퍼추신 애국운동의 불씨를 거세한 불길로 타번지게 한다면 상업운영에 필요한 갖가지 질 좋은 상품들을 얼마든지 생산보장할수 있다고, 얼마전에 군수공업부문 생활필수품평의회를 조직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 하시였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상품전열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상품전열은 제품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봉사활동의 친절성, 편리성,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였다.

상업봉사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봉사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봉사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심도있게 진행하며 선진적인 봉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와 함께 상품구입으로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경영활동을 정보화, 컴퓨터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상업봉사자들의 인민들에 대한 봉사성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파시하는 문제와 직결되어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봉사자들은 인민의 충부이라는 자각을 안고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창광상점이 정말 멋있다고 하면서 언제든지 문을 여는가고 끊임없이 늘어난다는데 미흡한 점이 하나도 없게 운영준비를 더 잘하여 10월 10일을 계기로 개점하라고 지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678호

주제104(2015)년 9월 23일

전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년금, 보조금, 장학금을 받는 대상들에게 특별상금을 수여함에 대하여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철저히 똬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국전쟁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머지않아 영광스러운 조선통일전쟁의 일흔둘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로동당정권 일흔둘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존함으로 만방에 빛을 뿌리는 선군조선의 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승사이다.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뜻깊은 올해 투쟁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창건 일흔둘과 조국해방 일흔둘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명예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승사로 맞이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조국해방 일흔둘과 당창건 일흔둘을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채택, 발표하도록 하시어 천만민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시고 온 나라에 대혁신, 대박악이 내세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전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제국주의반동들의 전멸의 존함으로 만방에 빛을 뿌리는 선군조선의 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승사이다.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전인민적대진군에서 창조된 혁혁한 성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이 땅 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애국충정에 의하여 이룩된 자랑찬 열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어니나당에 드리는 총정의 로명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특별상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둘을 맞으며 전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년금, 보조금, 장학금을 받는 모든 대상들에게 월기 준생협비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금을 수여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자

축적전역에서 당창건 일흔둘을 빛나는 로명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기 새 차게 타오르겠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축적공파의 심으로 훌륭히 전진시키려는 군인들과 건설자들, 련관단위로동계급과 각계층 지원자들의 혁명적열의속에 전방적인 공사를 하라무라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기상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파괴기술상정점의 마감공정인 돌출이기가 적극 추진되고 분수러와 야외학습, 야외전시



파괴기술상정점의 마감공정인 돌출이기가 적극 추진되고 분수러와 야외학습, 야외전시

청년강국의 역센 주추들이 되어

청년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는 각급 당조직들

주제적인 선군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각급 당조직들이 청년중시정책을 새 차게 일깨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사업을 당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 청년동맹조직을 적극 내세워 주며 동맹조직이 자기의 전투적 지휘관 역할을 다하도록 힘껏 뒷받쳐주어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을 귀중한 전수로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기 위한 사업을 보다 심화시키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청년투쟁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청년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그들을 당이 바라는 함된 인간,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들로 키워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을 귀중한 전수로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각급 당조직들이 청년중시정책을 새 차게 일깨우고있다.

각지의 시, 군, 구역당위원회와 기관, 기업소당조직들에서도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당사업의 선에서 철저히 구현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삼지연군당위원회에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솟아있는 역사의 고장에서 살며 일하는 공지와 자부심을 청년들의 심장에 심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심화시켜나가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나래를 열어주었다. 승전, 북창, 개천, 덕천, 독장지구의 단결전에 조직된 청년들끼리의 청년들은 식민전쟁에서 위훈을 떨치고

있다. 헌성-생산선전자호음식 배수공공사에 참가한 2.16 청년결사대, 김일성동지탄생 70돌을 맞아 10월의 대축전장에 드리는 자랑찬 로명적선물을 마련할 불타는 마음안고 진격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긍정적 소정의 주인공들을 적극 찾아내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는 파죽을 통하여 청년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고있다. 해마다 진행되는 도안의 대학, 전학학교,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의 철명에서의 답사행군, 청년학생들의 모임 등 제기마다 청년비룡선군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모범을 모두가 따라배우도록 하고있다.

최근 도안의 대학, 전학학교의 수많은 졸업생들이 분계연선지대와 선초소, 산골꾼의 교육, 보건부문에 자원출하여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내고있는것은 도당위원회가 청년사업에 큰 힘을 넣은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평양곡산공장 현지지도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70돐과 공장창립 70돐을 맞으며 24일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셨다.



#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맥동치는 무대

##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기동에술선동대공연을 보고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의 청년공원이아극장에서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기동에술선동대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포도모를 감명깊게 보여준 훌륭한 공연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기동에술선동대공연이 진행되는 소식에 접한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이 청년공원의아극장을 찾았다.

그 명칭 불려난 보아도 가슴뜨거워지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비대한 전위투사들이 출연하는 공연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맥동치고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이 짙어간 무대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오직 우리 당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순결한 마음으로 당을 믿고 따르며 당이 가까이 있는 한길로 의세계 나아가야 합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청춘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가는 전구는 수도 평양으로부터 수천리 떨어진 북변땅이라 하눌이해 첫 동네라 불리우는 높고 험한 곳이다.

다른 나라 청년들같은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도리머리를 거를 심심산골에서 우리의 전위투사들은 해를 두어 만년인데를 쌓아나갔다.

이들은 지난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전선진건설을 다녀가신 때로부터 120여일간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밝혀 청년들을 맞으며 1호발전소의 인제 콩크리트타임을 결속하여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무슨 힘으로 이런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번 공연을 통하여 가슴벅차게 알아간게 되었다.

할일혁명선열들이 입었던 군복차림을 하고 가슴에 영광넉넉 돌격대대장을 단 기동에술선동대원들이 출연하는 3인시 《사랑과 위훈》.

조국방 방방곡곡에서 모여온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는 꿈에다 잊지 못하는 사연이 있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쌓인 피로도 후심적 없이 산세한 곳까지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격대원들에게 백두산악과도 같은 신념의 기동을 역세게 세우시었다.

역사의 그날 돌격대원들의 투쟁위훈을 두고 우리 당에서 키워낸 우리 청년들만이 이렇게 배대한 공사를 해낼수 있다. 이런 활력있는 청년대군이 있기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교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들어 키워주신 전위투사들의 영광넉넉 자욱이 력력한 발전선진건설을 찾으시었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의 불타는 충성의 마음을 보았다고,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절세의 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은 이이 돌격대원들은 당중앙을 결속유하는 성세를 쌓는 심정으로 조국의 만년안락을 받들어올렸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길동무라하시 금방 석에 앉히자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을 담은 노래 《금방석》을 부르며 돌격대원들은 따뜻한 것을 찾아 새들이 날아갈 때에도 애국의 땅방울을 아낌없이 뿌리는데서 더없는 긍지와 희열을 찾았다.

그들의 마음속진정을 우리 원수님께서는 속속들이 헤아려주시었다.

하기에 우리 원수님께서 발전선진건설을 또다시 찾으시었던 그날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포라라 흑룡저 내발리는 백두정촌들의 영웅적기상과 위훈이여라고 하신 말씀을 전달받고 돌격대원들은 《우리는 태양을 따르는 청춘 원수님 한분밖에 모르는 청춘》이라고 노래한 《금방석》을 격정에 넘쳐 부르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여주시는 사랑과 정이 퍼져서 청년들이 이어지는 혁명의 전구는 그야말로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들이 지라는 백두정촌대학이었다.

백두정촌대학에서 전위투사들이 스스로 정한 과목은 무엇이었고 순결한 향심으로 세진 성적은 어떤것이었던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정신세계를 구이하여 《백두정촌대학학생적》은 가슴뜨겁게 펼쳐보이고있다.

건설의 나날 동무들을 구원하고 몸을 다친 돌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이 실린 신문을 품에 안고 고향의 마지막순간까지 마이코를 틀어잡은 감동적인 이야기는 그대로 오늘의 별찬사 이하였다.

혁명의 사명부를 결사옹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고 사랑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전에는 물러설수 없었다는 할일혁명선열들의 넉과 기개로 우리 청년들은 백두정촌대학을 배웠다.

《자력갱생, 결사관철》, 《혁명적투쟁에, 집단주의》, 《혁명적투쟁의》, 《백두정촌대학의 배와목숨을 새긴 전위투사들의 생애를 기록과 애국의 땅방울, 망망대해의 생활을 전하며 마다에서 울린 노래가 다 말해주고있다.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우리의 매일이 빛날것이야》, 《일일속의 승전기》...  
공원의 막은 내렸다. 그러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지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맥동치는 투쟁의 노래는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계속 높이 울려져지고있다.

# 체육관을 훌륭하게 건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 당의 위선과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 요구이며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조국희해주교원대학에서 체육관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새로 일떠세운 체육관은 여러가지 밝은 색의 외장재와 타일, 각종 장식부각으로 바깥면을 조화롭게 처리한것으로 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 시원한것을 선사하는 분위기를 안겨주었다.

체육관안에는 물구와 배구, 탁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체육기구를 갖추어 놓았으며, 100여의 세멘트와 수직의 강재, 특수시멘트의 목재를 비롯한 많은 량의 건설자재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목이 큰 작전을 펼쳤다.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고 무런 고지원을 앞선 공병과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총망이 여러 벽체만 놓이 않아야 하는 어려운 벽체쌓기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여러 단위를 도와 건설한것으로 성과를 올렸다.

이것은 조국희해주교원대학에서 체육관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새로 일떠세운 체육관은 여러가지 밝은 색의 외장재와 타일, 각종 장식부각으로 바깥면을 조화롭게 처리한것으로 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 시원한것을 선사하는 분위기를 안겨주었다.

체육관안에는 물구와 배구, 탁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체육기구를 갖추어 놓았으며, 100여의 세멘트와 수직의 강재, 특수시멘트의 목재를 비롯한 많은 량의 건설자재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목이 큰 작전을 펼쳤다.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고 무런 고지원을 앞선 공병과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총망이 여러 벽체만 놓이 않아야 하는 어려운 벽체쌓기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여러 단위를 도와 건설한것으로 성과를 올렸다.

이것은 조국희해주교원대학에서 체육관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에서

한사람이 한사람씩

정확한

책임

# 크나큰 기쁨안고 사과따기 한창

북청군 룡전과수농장에서 사과 따기 한창이다.

백두산철새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북청군 룡전과수농장에서 사과 따기 한창이다.

돌격대원들이 세 세기에 들어와 청춘과원으로 전변된 과수농장에 풍요로운 사과작황을 펼쳐 놓는 기쁨을 안고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사과 따기를 다그쳐 매일 실적을 부쩍 끌어올리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과일농사도 과학기술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전문화, 기계화하여야 합니다.》

주제 100(2011)년 5월과 10월 선군혁명명도로 그려진 바쁘신 가운데서도 무슨 농작업도 놓치지 않고 과수농장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발전자들은 전사회가 세계진속 및 사전기술발전추세를 보여 주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가 조선도시민행과 고려선진사회의 다방면적인 문화교류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다.

이러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 전국석탄공업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 진행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전국석탄공업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가 23일 24일 현성청년관람장에서 진행되었다.

국가과학원 산하단위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 순천지구청년관람합기업소, 안주지구관람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현장일군, 3대혁명소조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발표회에서는 당의 경제강국 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석탄공업

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140여건의 가치 있는 연구문헌들이 제출되었다.

이 기간 석탄자원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과학기술성과발표회가 진행되었다.

현성청년관람합, 국가과학원 석탄과학분원, 지질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의 단위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사상원들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무연탄 중박층재에서 채취물체고방법》, 《봉피공간현

#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 꽃핀 청춘과원에 과일향기 넘친다

발전자들은 전사회가 세계진속 및 사전기술발전추세를 보여 주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가 조선도시민행과 고려선진사회의 다방면적인 문화교류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다.

이러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 좋은 과일작황을 마련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과일생산은 늘이는 것은 인민생활을 개선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과과수농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게 신선한 과일을 더 많이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 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올해 과일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에 귀중한 과일나무모종을 보내 주시어 우리 나라의 풍토에 순화시키며 맛 좋고 정교한 수확과도 높은 과일나무모종을 많이 심어주시었다.

그날의 그 온정을 심장에 새기고 농장의 일군들과 종

# 건축 및 인물사진전시회 개막

조선도시민행과 고려선진사과 공중추회하는 건축 및 인물 사진전시회가 24일 천리마문화관에서 개막되었다.

전시회장에는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건축물, 풍경,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한 2천면, 3차원사진들이 전시되어있다.

#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제일

평안영에 도착하여 아이를 안고 정유소에서 안락과화하는 저를 교통보안원이 정안선원까지 직접 데려다주면서 아이를 잘 키우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산원의 파장선생님과 당의사, 담담간호원들은 우리 아이들이 입원한 순간부터 긴장없이 치료전투를 벌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사랑의 애기궁

# 단상 밤은 웃음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의 웃음은 우리 인민의 피맛이 스며있고 슬기로운 재능이 깃들여있는 자랑스러운 웃음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귀중한 밑천입니다.》

거리와 마을들이 흥성이고 온 나라에 사과향이 차던 것이었다. 거리의 풍치를 돌리주며 사과가 그득그득 담판 구워지고 들고가는 사람들의 얼굴마다 행복의 웃음이 피어나고있다.

그들의 밝은 웃음은 어디서 오는것일까.

지난 8월 대동강과수 종합농장을 찾으면서 먹음직스러운 사과들을 보고 또 보시며 과일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다고 보지만 해도 사과가 부드럽고 보시면서 한해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두루머리 기쁨에 앞서 눈물로 무릎을 적시던 우리 인민이었다.

이제는 김책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들과 고급과일음료를 비롯한 식료

# 주조외교단 1116호농장 참관

당외교단 1116호농장을 참관하였다.

농장에서는 당의 경제강국 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석탄공업

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140여건의 가치 있는 연구문헌들이 제출되었다.

이 기간 석탄자원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과학기술성과발표회가 진행되었다.

현성청년관람합, 국가과학원 석탄과학분원, 지질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의 단위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사상원들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무연탄 중박층재에서 채취물체고방법》, 《봉피공간현

# 유엔총회 제70차회의에 참가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뉴욕 도착

유엔총회 제70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23일 뉴욕에 도착하였다.

대외교협 조국방문단들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 유엔총회 제70차회의에 참가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뉴욕 도착

유엔총회 제70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23일 뉴욕에 도착하였다.

대외교협 조국방문단들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 유엔총회 제70차회의에 참가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뉴욕 도착

유엔총회 제70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23일 뉴욕에 도착하였다.

대외교협 조국방문단들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떠나갔다

김봉화, 최진숙, 리철성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떠나갔다

김봉화, 최진숙, 리철성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 사회주의분명국건설의 자랑찬 성과안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

과학기술이라는 기반차량을 앞세우고 당장건 일꾼들을 향해 불같이 달려온 자력갱생의 진군대오는 바야흐로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가까이 하고있다.

이 대축전에는 최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일으키며 이 땅에 이룩되는 창조물마다, 현대화로 물드는 일리마디에 피리는 땀을 바쳐온 각지 대학 교원, 연구사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문명국건설에서 전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각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올해초부터 지식경제시대의 지름길을 열기 위한 최첨단과학기술에 헌신할 줄을 아셨다.

교육위원회와 각 대학 책임인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높고 있고, 연구사들의 과학연구 활동이 더욱 고조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초 평양시비서봉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시의 구상대로 현대적인 비서봉장 건설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시던 교원, 연구사들에게도 당당하고 위대한 이음으로 감사를 주신

것은 올해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추진한 원동력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서는 나날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으로 몰려야 할 문제들과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를 풀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걸고 현장에 많은 교원, 연구사들을 파견하였다.

김정숙평양양봉공장, 평양양말공장, 평양강냉이 가공공장, 평양아린이식료품공장, 금강제육인종합식품공장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각종공업공장과 세로직기 생산기지건설장, 북방화학발전연합기업소, 청원강제단식발전소건설장 등 그 어디에서나 많은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의 애국의 마음과 탐구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랐다.

평양양말공장의 2단계 현대화사업을 위해 동원된 평양기계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현장에서 고집이던 노력을 기울여 나차이로웠던 양말생산공정과 정밀 및 용융로장치의 설계제작을 끝내고 종합사운전단계에 이르면 생산과 품질을 거두고는 때 평양아린이식료품공장에 파견된 이 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애기까지가수작업을 현대화하

기 위한 과제를 맡아안고 탐구의 나날을 이어가며 류동중진조기를 비롯한 45종의 설비들을 설계제작하였으며 시운전을 진행하여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갔다.

한덕수평양양봉공업종합대학에서는 20여개 대상에 교원, 연구사들을 내보내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경공업공장의 현대화사업을 크게 도와주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분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학원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받들고 이 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김정숙평양양봉공장에 가방용원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세로직기 생산기지에 고기가공공장과 젓가공공장을 확립하기 위한 과학연구활동으로 탐구의 나날을 이어갔다. 이뿐 아니라 체육성에서 파견되어 2월 17일과자학, 가자학수업과제에 참가한 교원, 연구사들은 선수복과 마라손신발, 체육인공품을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평양시비서봉장을 우리 나라 비서봉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세우고 평양시 사용자역 장전 남산전원통동농장을 사회주의 농촌현대화의 본보기, 기준으로

한치계백시에는 적극 기여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큰 기쁨을 드린 평양진속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일떠서는 수많은 대상들에 대한 건축형성설계들과 기술설계들을 맡아 진행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빛내이는데서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뿐만아니라 첨단기술을 도입한 건축조형설계와 건축용량설계, 건재의 국산화실현 등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큰코끼리복구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라선시에 달려나와 새로 일떠서는 공업건설들과 사립집들을 위한 설계전투를 힘있게 벌이면서 피해지역을 먼 후방에 가셔도 손이 없는 사회주의 선진으로 훌륭히 변모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여러 전투장들에 파견된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의 과학연구활동도 맹렬히 벌어졌다.

함흥수리동력대학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도 북방화학발전연합기업소와 부페산세멘트공장에 달려나가 여러차례의 기술협력 협고 대책을 토의하며 이어 생산정장장공, 문명국건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뜻깊은 올해를 앞두고 서산호텔이 새 모습을 펼친 소식이 전해져 온 나라 인민을 기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부문의 물질적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청춘거리 체육촌의 서산축구경기장과 송구경기장이기에 자리잡고있는 서산호텔은 질세워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곳이다.

지난 세기 80년대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안락시대에 우리 체육인들을 위한 호텔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공사가 한창일때 이르렀을 때에 그 이름을 《서산호텔》로 부르도록 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력한 건설명령을 보내주시고 빠른 기간에 호텔을 일떠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이렇듯 헌정받은 질세워인들의 뜨거운 사랑에 주체78(1989)년 5월 1일에 준공된 서산호텔은 수십년간 나라의 체육발전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체육교류에 적극 이바지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2(2013)년 인민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여기고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은 지극하기 그지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사의 지도자로서 굳게 믿으시고 내세우시는 우리 인민군대를 위한 원군전에서 우리 인민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자속을 세우는가.

누가 알아주지않던 지난 수십년동안 인민군인들을 위하여 자신과 가정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온 수도건설위원회산하 평양구상점 지배인 김미애동무, 최원진 같은 애국영웅을 위하여는 애가울것이었다 하시면서 당에서 최전선인원들을 위해 취해준 조치들이 온을 내게 하라 하시니 그대에게는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밤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고 하신 김미애동무의 가슴에 새겨진 인민의 믿음의 눈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렁해졌다.

《추측컨대 눈물로 저 멀리 오성산의 하늘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그의 귀전에 책임인공의 목소리가 울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 받들어 지금 인민군을 위한 일을 하려하는데 병사들을 위한 좋은 일 본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인공의 맑은 들끓는 세로땀을 떠나 짐으로 돌아올 때까지 김미애동무의 귀전에 내내 들려올 줄랐다.

병사들을 위한 좋은 일을 본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이슬이 그 얼굴에 점점 뜨거워졌다. 격정으로 눈금이 젖어들던 그때 눈물을 거두고 병사들을 위한 좋은 일을 우리도

함흥영애군인 의료기구공장에서

지난 8월초 백두산 정으로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함흥영애군인 의료기구공장 일꾼들과 졸업생들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싹터 투쟁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올해신년사를 받아안고 위수총, 김희경동무를 비롯한 공장 일꾼들과 졸업생들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뜻깊은 당장전 70호를 끝낸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그러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나갔다. 그러나 긴장된 전선상황으로 하여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들이 이들의 앞을 가로막아나갔다. 일부 일꾼들과 졸업생들속에서 맥을 놓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장의 현 실태와 졸업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공장일꾼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과연 10월 10일까지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을 거듭하던 공장일꾼들의 머리에는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도가 떠올랐다.

(가자, 백두산으로! 백두산에 가면 폭풍에도 굴복없는 의지와 힘이 생길 것이다.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심금을 버려자.)

이렇게 되어 백두산으로 공장일꾼들과 졸업생들은 함흥 혁명정신으로 깃들었다.

이들은 백두산에 올랐을 때 바라보며 당일에 맹세다대로 10월 10일까지 인민경제계획을 반드시 수행할 결심을 다스금 굳게 다졌다. 보송사람들과는 다른 불리한 몸으로 온 백두산이기에 여기에서 이 들이 받은 충격도 이처럼 남다른 것이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탐사후 공장일꾼들과 졸업생들의 사상정신상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모두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명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할 항일혁명투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보며 올해 인민경제

계획을 기어아 앞장서 수행하고자 할 열의가 불타올랐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발맞추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기 위한 사업에 신장적인 힘을 넣었다.

전력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도 생산을 원만히 밀고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이 세워졌다.

공장일꾼들과 졸업생들의 집체적지혜와 창조적인 노력에 의하여 전철에만 전적으로 의거하여 생산하던 제품들을 석탄을 리용하여 제작하기 위한 사업들을 비롯하여 어느때에는 생각지 못했던 혁신적인 창의고안들이 여러건이나 생산에 도입되었으며 청년기부분들들을 비롯한 새 제품개발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결과 공장에서는 8월말까지 3.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할 수 있었으며 당장전기 넘일까지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나갔다.

지배인 위수총동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년에 우리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같이 새겨 들 뚫지 못한 난관이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생산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갔습니다.》

주 령 불

뜻깊은 10월을 앞두고 서산호텔이 새 모습을 펼친 소식이 전해져 온 나라 인민을 기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부문의 물질적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청춘거리 체육촌의 서산축구경기장과 송구경기장이기에 자리잡고있는 서산호텔은 질세워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곳이다.

지난 세기 80년대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안락시대에 우리 체육인들을 위한 호텔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공사가 한창일때 이르렀을 때에 그 이름을 《서산호텔》로 부르도록 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력한 건설명령을 보내주시고 빠른 기간에 호텔을 일떠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이렇듯 헌정받은 질세워인들의 뜨거운 사랑에 주체78(1989)년 5월 1일에 준공된 서산호텔은 수십년간 나라의 체육발전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체육교류에 적극 이바지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2(2013)년 인민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여기고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은 지극하기 그지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사의 지도자로서 굳게 믿으시고 내세우시는 우리 인민군대를 위한 원군전에서 우리 인민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자속을 세우는가.

누가 알아주지않던 지난 수십년동안 인민군인들을 위하여 자신과 가정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온 수도건설위원회산하 평양구상점 지배인 김미애동무, 최원진 같은 애국영웅을 위하여는 애가울것이었다 하시면서 당에서 최전선인원들을 위해 취해준 조치들이 온을 내게 하라 하시니 그대에게는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밤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고 하신 김미애동무의 가슴에 새겨진 인민의 믿음의 눈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렁해졌다.

《추측컨대 눈물로 저 멀리 오성산의 하늘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그의 귀전에 책임인공의 목소리가 울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 받들어 지금 인민군을 위한 일을 하려하는데 병사들을 위한 좋은 일 본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인공의 맑은 들끓는 세로땀을 떠나 짐으로 돌아올 때까지 김미애동무의 귀전에 내내 들려올 줄랐다.

병사들을 위한 좋은 일을 본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이슬이 그 얼굴에 점점 뜨거워졌다. 격정으로 눈금이 젖어들던 그때 눈물을 거두고 병사들을 위한 좋은 일을 우리도

3월 청춘거리 체육촌의 여러 경기관들과 함께 서산호텔도 돌아보시면서 호텔을 체육인들과 관람객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현대적인 호텔로 개조할 것에 대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강력한 건설명령도 마련해주고 시 필요한 자재와 설비보장 등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에도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며 공사일정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호텔의 봉사활동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자재의 힘으로 작지 않은 규모의 내세우려고구르기도 많은 진행하였으며 넓은 면적의 땅에 잔디밭도 조성하고 나무들도 심으며 호텔정원의 수리화, 원형화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이렇듯 당의 손길과 관내와 인민이 한마음한 뜻이 되어 힘찬 투쟁을 벌인 결과 마침내 서산호텔이 훌륭히 개조되어 오늘날은 준공의 날을 눈앞에 두고있다.

30층으로 된 서산호텔의 외부가 더욱 환해지고 내부가 종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이 완전히 일신되었다.

독특한 건축형식에 현대적인 설비들과 가구들이 갖추어졌으며 수백개의 호실들, 관공들, 여러개의 크고작은 식당들, 물놀이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등이 훌륭히 구비되어 체육인들과 대외교사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는 태도가 뚜렷히 마련되었다.

지금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더욱 빛내이고 체육강국건설에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열업준비를 마지않는 단계에서 적극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오철훈

뜻깊은 올해를 앞두고 서산호텔이 새 모습을 펼친 소식이 전해져 온 나라 인민을 기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부문의 물질적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청춘거리 체육촌의 서산축구경기장과 송구경기장이기에 자리잡고있는 서산호텔은 질세워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곳이다.

지난 세기 80년대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안락시대에 우리 체육인들을 위한 호텔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공사가 한창일때 이르렀을 때에 그 이름을 《서산호텔》로 부르도록 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력한 건설명령을 보내주시고 빠른 기간에 호텔을 일떠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이렇듯 헌정받은 질세워인들의 뜨거운 사랑에 주체78(1989)년 5월 1일에 준공된 서산호텔은 수십년간 나라의 체육발전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체육교류에 적극 이바지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2(2013)년 인민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여기고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은 지극하기 그지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사의 지도자로서 굳게 믿으시고 내세우시는 우리 인민군대를 위한 원군전에서 우리 인민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자속을 세우는가.

누가 알아주지않던 지난 수십년동안 인민군인들을 위하여 자신과 가정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온 수도건설위원회산하 평양구상점 지배인 김미애동무, 최원진 같은 애국영웅을 위하여는 애가울것이었다 하시면서 당에서 최전선인원들을 위해 취해준 조치들이 온을 내게 하라 하시니 그대에게는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밤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고 하신 김미애동무의 가슴에 새겨진 인민의 믿음의 눈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렁해졌다.

《추측컨대 눈물로 저 멀리 오성산의 하늘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그의 귀전에 책임인공의 목소리가 울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 받들어 지금 인민군을 위한 일을 하려하는데 병사들을 위한 좋은 일 본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인공의 맑은 들끓는 세로땀을 떠나 짐으로 돌아올 때까지 김미애동무의 귀전에 내내 들려올 줄랐다.

병사들을 위한 좋은 일을 본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이슬이 그 얼굴에 점점 뜨거워졌다. 격정으로 눈금이 젖어들던 그때 눈물을 거두고 병사들을 위한 좋은 일을 우리도

나라의 재부를 늘여나간다

국가과학원 지질연구소에서

크게 이바지하였다.

안식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단천지구 유용광물자원들에 대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내었다.

실장 박사 김경남, 연구사들인 김승현, 홍성경동무들 비롯한 과학자들은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며 첨단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내었다. 유용광물자원들의 확보와 매장량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단천지구의 지질구상을 새롭게 해명하고 철과 희유금속, 귀금속 등의 광물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결과 개발방향이 좋은 단천지구의 유용광물자원을 찾아내었다.

과학자들은 단천지구광업총국이라는 여러 광산들의 지질적 탐사기록을 구축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유용광물자원들의 확보와 매장량관리의 정밀성을 높였다. 현지에서의 연구사업과정에 과학자들은 비록 직접적인 연구과제는 아니지만 단천지구에서 지하수탐사를 진행하여 이곳 주민들의 먹는물문제도 원만히 풀 수 있는 지하수원지를 찾아내었다.

성과는 유용광물학연구집단에서도 이룩되었다.

교수 박사 최원진, 실장 한창실동무들 비롯한 이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경공업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경공업발전의 종자라, 생명선으로 돌리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평성까지 많이 배양되어있고 지금까지 별로 소지 못하였던 전문보조공과자 등을 리용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스스로 달려붙었다.

이들은 평성합성가죽공장 일꾼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열정을 강화하여 전문보조공과자를 쓰는 여러 가지 수지나 광물자원을 찾아내었다.

과학자들은 단천지구광업총국이라는 여러 광산들의 지질적 탐사기록을 구축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유용광물자원들의 확보와 매장량관리의 정밀성을 높였다. 현지에서의 연구사업과정에 과학자들은 비록 직접적인 연구과제는 아니지만 단천지구에서 지하수탐사를 진행하여 이곳 주민들의 먹는물문제도 원만히 풀 수 있는 지하수원지를 찾아내었다.

성과는 유용광물학연구집단에서도 이룩되었다.

교수 박사 최원진, 실장 한창실동무들 비롯한 이 연구집단의

하는 여러 단위들에 확대도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광속을 들여다보는 과학자들로 널리 알려진 실장 박사 최수오, 홍성경, 연구사 김경남, 홍성경동무들 비롯한 과학실습기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실시간탐사—전기 종합CT탐사기술을 개발하여 여러 탐광에 도입함으로써 석탄 탐사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2(2013)년 3월 실장 최수오동무를 비롯한 이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에게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었다.

이밖에도 연구사들은 평양국제비행장에 조를 꾸리고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것을 맹목적으로 약속을 내었다.

소장 박사 최수오 박혁동무들과 오대동무들 비롯한 연구사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애정적인 조직사업, 힘있는 고무는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과 애국의 마음으로 명상에 붙어있는 자연부원을 찾아내어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늘여가는데 과학자들의 투쟁에 전한 열거들이 되고있으며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발걸음에 활력을 더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명희

인민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여기고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은 지극하기 그지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사의 지도자로서 굳게 믿으시고 내세우시는 우리 인민군대를 위한 원군전에서 우리 인민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자속을 세우는가.

누가 알아주지않던 지난 수십년동안 인민군인들을 위하여 자신과 가정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온 수도건설위원회산하 평양구상점 지배인 김미애동무, 최원진 같은 애국영웅을 위하여는 애가울것이었다 하시면서 당에서 최전선인원들을 위해 취해준 조치들이 온을 내게 하라 하시니 그대에게는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밤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고 하신 김미애동무의 가슴에 새겨진 인민의 믿음의 눈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렁해졌다.

《추측컨대 눈물로 저 멀리 오성산의 하늘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그의 귀전에 책임인공의 목소리가 울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 받들어 지금 인민군을 위한 일을 하려하는데 병사들을 위한 좋은 일 본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인공의 맑은 들끓는 세로땀을 떠나 짐으로 돌아올 때까지 김미애동무의 귀전에 내내 들려올 줄랐다.

병사들을 위한 좋은 일을 본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이슬이 그 얼굴에 점점 뜨거워졌다. 격정으로 눈금이 젖어들던 그때 눈물을 거두고 병사들을 위한 좋은 일을 우리도

서산호텔이 새 모습을 펼쳤다

세워주시면서 손잡이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은 끝이 없었다.

공사를 받은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의 응원과 심장에 새겨안고 호텔을 손색없이 개조하기 위한 전투를 끝까지 벌였다.

모든 작업공정에서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군인건설자들의 열사정열의 투쟁정신은 한겨울의 땀한 추위속에서도 공사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지배인 김정은동무를 비롯한 호텔의 일꾼들과 졸업생들은 거듭 배울어지는 당의 믿음과 사랑에 감격울 수지 못하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개건공사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애국열정을 다 내세웠다.

이들은 여러가지 자재문제해결

뜻깊은 올해를 앞두고 서산호텔이 새 모습을 펼친 소식이 전해져 온 나라 인민을 기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부문의 물질적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청춘거리 체육촌의 서산축구경기장과 송구경기장이기에 자리잡고있는 서산호텔은 질세워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곳이다.

지난 세기 80년대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안락시대에 우리 체육인들을 위한 호텔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공사가 한창일때 이르렀을 때에 그 이름을 《서산호텔》로 부르도록 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력한 건설명령을 보내주시고 빠른 기간에 호텔을 일떠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이렇듯 헌정받은 질세워인들의 뜨거운 사랑에 주체78(1989)년 5월 1일에 준공된 서산호텔은 수십년간 나라의 체육발전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체육교류에 적극 이바지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2(2013)년 인민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여기고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은 지극하기 그지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사의 지도자로서 굳게 믿으시고 내세우시는 우리 인민군대를 위한 원군전에서 우리 인민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자속을 세우는가.

누가 알아주지않던 지난 수십년동안 인민군인들을 위하여 자신과 가정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온 수도건설위원회산하 평양구상점 지배인 김미애동무, 최원진 같은 애국영웅을 위하여는 애가울것이었다 하시면서 당에서 최전선인원들을 위해 취해준 조치들이 온을 내게 하라 하시니 그대에게는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밤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고 하신 김미애동무의 가슴에 새겨진 인민의 믿음의 눈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렁해졌다.

《추측컨대 눈물로 저 멀리 오성산의 하늘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그의 귀전에 책임인공의 목소리가 울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 받들어 지금 인민군을 위한 일을 하려하는데 병사들을 위한 좋은 일 본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인공의 맑은 들끓는 세로땀을 떠나 짐으로 돌아올 때까지 김미애동무의 귀전에 내내 들려올 줄랐다.

병사들을 위한 좋은 일을 본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이슬이 그 얼굴에 점점 뜨거워졌다. 격정으로 눈금이 젖어들던 그때 눈물을 거두고 병사들을 위한 좋은 일을 우리도

로루사가정의 역센 가풍은 이렇게 이어진다

수도건설위원회 산하 평양구상점 지배인 김미애동무

합께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세로직기 생산기지를 건립할 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심찬을 밀고 오르신 선군의 산악 오성산을 찾았으니 밤사들을 통해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우리 인민들의 운명에 걸하여 흘린 눈물이 격정의 눈물로 그려서 안락되었었다.

《이제 우리 미애가 (남자 울너)가 되시었다.》

《남자미애를 너》이라는 아 직은 귀에 서 내일이 원군의 장에 서 너를 의미하는 줄 그 는 자랑거리였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원군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 대학공부를 할 때에도, 1977년 이천혁명사적관 강사로 배치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충성적인 충직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줄곧 가슴 후두두오르느것을 금치 못해 하였다.

병사들을 위한 그의 진정은 1982년 결혼을 한 이후에는 더욱 추진력했다. 그의 시아버지는 한생을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항일혁명투사였다. 육신대는 훈춘유격대 소대장으로 이름을 날린 로루사는 군복을 벗어도

전령보병인 안애와 함께 떠날까 무기와 짐승을 거두고 부지런히 하면서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였다.

머리까지 건강을 넘버할 때면 로루사는 병고에 웃으며 말했다. 《세살 뱀새끼도 넘쳐나는 공민이란다. 뜨거운 사랑으로 인민군대를 돕는것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잊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흘러도 자라나 전사의 본분과 공민의 의무를 자각하고 사는 항일혁명투사로서 아버지의 유언을 도와 김미애동무는 아람과 함께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서해간선건설과 평양—개성고속도로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일혁명투사들을 위하여 마련해주신 현대적인 살림집을 사면서 인민군대정부를 하던 그 시기 김미애동무는 해마다 뜻깊은 명절과 기념일이 다가오면 저저마다 펼쳐서 인민군인들에게 보내줄 갖가지 원호물자들을 마련해가는 로루사들의 충직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줄곧 가슴 후두두오르느것을 금치 못해 하였다.

항일의 로루사들이 뜨거운 심장을 안고 걷는 원군길, 그것은 한생을 토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따라 이어가는 충정의 길이었다. 리얼이 맑고 절곡한 충정의 길은 항일혁명투사들의 모범을 거울로 삼고 그 로루사들과 함께 원호물자들을 성의껏 마련

하여 평양—향산관광도로건설장과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 다박출소와 조선인민군 근위서울유격부대 105명당사단 그리고 구월산유원지와 금강2동굴건설 등 조국보위초호와 사회주의건설정착을 영웅적위훈을 떨치는 인민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한때두 세월이 흐를수록 그에게 있어서 인민군대를 위한 것은 하나의 어길수 없는 생활로, 스스로 걸머진 인생의 의무로 되었다.

병사 주및 거된적도 없지 않았다. 그때마다 그는 불현한 몸으로 병사들을 위해 정정을 바쳐가던 어머니를 생각하였고 인생발전기 위해 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드는 마음으로 원군길을 이어가던 시아버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과 자신들을 향해 충직한 아들딸들로 키워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간 남편의 당부대로 서해간선건설을 나서고 하였다.

세로직기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그날에도 그는 이렇게 마음과 다짐과 오성산의 군인들을 돌이켜 보아 원호물들을 하 게 된 것이었다. ...

담담한 목소리로 전수사연을 이야기하는 김미애동무에게서 당책임인공은 눈길을 떼질 못했다.

병사들을 위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집행해 마다 격정의 눈물로 두물방을 적시다가도 이렇게 눈물속에 자기 할바를 찾아 스스로 두꺼에게

두팔걸고 나서서 수많은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곤 하는 그 정성은 얼마나 뜨겁고 훌륭한 것인지가.

군사중사, 원군에 우리의 열의가 달려있다는것은 그는 말로만 외우지 않았다.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을 충성스럽게 받들어 우리 군대를 강화하고 귀중한 병사들을 위한 원군길을 걸어야 할 일념으로 가슴끓이며 곁에 아드나 생의 자속을 세우는 김미애동무였다.

그해 5월말, 그는 서해의 최전선으로의 군인들을 힘껏 원호한데 이어 영평의 오성산초소에서 건설자들을 보다 큰 위훈에도 고무추동하는 수많은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눈비내리나 찬바람부나 전에서 서 조국의 안방을 지키는 초소의 병사들을 생각하며 출장길에서 한결한결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오성산의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리고 5월이 되어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오성산초소의 군인들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할것을 계기하는 것이 아닌가.

당책임인공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오성산의 지휘관, 병사들이 정말 기뻐할것이라고 감탄한 찬사를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는 책임인공에게 김미애동무는 나직이 말했다.

《원군으로 내 보증을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 아닙니까.》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리용하는 김미애동무는 당책임인공은 다시금 미소했다.

병사들을 위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집행해 마다 격정의 눈물로 두물방을 적시다가도 이렇게 눈물속에 자기 할바를 찾아 스스로 두꺼에게

두팔걸고 나서서 수많은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곤 하는 그 정성은 얼마나 뜨겁고 훌륭한 것인지가.

군사중사, 원군에 우리의 열의가 달려있다는것은 그는 말로만 외우지 않았다.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을 충성스럽게 받들어 우리 군대를 강화하고 귀중한 병사들을 위한 원군길을 걸어야 할 일념으로 가슴끓이며 곁에 아드나 생의 자속을 세우는 김미애동무였다.

그해 5월말, 그는 서해의 최전선으로의 군인들을 힘껏 원호한데 이어 영평의 오성산초소에서 건설자들을 보다 큰 위훈에도 고무추동하는 수많은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눈비내리나 찬바람부나 전에서 서 조국의 안방을 지키는 초소의 병사들을 생각하며 출장길에서 한결한결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오성산의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리고 5월이 되어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오성산초소의 군인들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할것을 계기하는 것이 아닌가.

당책임인공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오성산의 지휘관, 병사들이 정말 기뻐할것이라고 감탄한 찬사를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는 책임인공에게 김미애동무는 나직이 말했다.

《원군으로 내 보증을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 아닙니까.》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리용하는 김미애동무는 당책임인공은 다시금 미소했다.

병사들을 위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집행해 마다 격정의 눈물로 두물방을 적시다가도 이렇게 눈물속에 자기 할바를 찾아 스스로 두꺼에게

